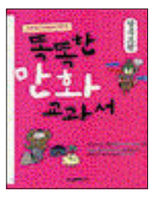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똑똑한 만화교과서(탈무드편)=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면서 교과서 밖의 다양한 상식을 담은 열린 교과서 시리즈. 아이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인간의 도리를 일깨워 주고 어른들에게는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하는 105개의 탈무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대교베텔스만·8천800원〉

▲밤부와 친구들-비는 왜 내릴까요(전5권)=열대 우림지역에 사는 밤부, 베베, 비크가 통나무 위에 함께 앉아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그림책. 각 권마다 실제 자연속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작가 니콜라 에반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화면구성이 인상적이다. 만 3~7세 어린이들에게 권할만하다.

〈키즈랜덤·각 7천800원〉

▲인간도 기후를 변화시킨다고?=프랑스의 국립과학협회 과학자들이 초등학생을 위해 쓴 '영재 사이언스 캠프' 시리즈. 지구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기후변화의 요인들이 무엇인지, 기후 예측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주니어 김영사·8천원〉

▲여우비=너무도 평범했던 열두살 예진이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사랑과 마술, 그 속에서 예진이가 겪는 마음의 소란스러움이 발랄하게 그려진 동화책. 이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열두살 주인공의 사랑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의 관심대상인 마술과 함께 유쾌하게 엮어냈다.

〈웅진 주니어·8천원〉

▲달 항아리='낮에 나온 반달', '풍당풍당', '고향땅', '어린이날 노래' 등 동화작가 윤석중 선생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동화들을 한데 묶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책에는 표제작인 '달항아리'를 비롯 '맨발선수', '두고 온 꽃밭', '잃어버린 돈' 등 8편의 동화가 수록돼 있다.

〈계림북스쿨·6천500원〉

여덟번째 시집 '그래서 당신' 펴낸 '섬진강 시인' 김용택씨

"산벚꽃 흐드러진 저 산에 숨어 살고싶네"

이순까지 살아 오며 느낀 삶의 열정·허무 고스란히

강·매화 등 자연도 노래

"산벚꽃 흐드러진/저 산에 들어가 꼭꼭 숨어/한 살림 차려 미치게 살다가/푸르름 다 가고 빈 삭정이 되면/하얀 눈 되어/그 산 위에 흩날리고 싶었네"('방창(方暢)' 전문)

'섬진강 시인' 김용택(58) 씨의 여덟 번째 시집이 나왔다.

새 시집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시인이 이제껏 살아오며 느껴왔던 삶의 열정과 허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방창'은 시인의 어머니와 그 또래 시골 아낙들의 목소리를 빌려 한 편의 시로 표현해낸 것. "한 살림 차려 미치게 살다가…흩날리고 싶"은 여인네들의 한숨이기도 하다.

시인의 삶에 대한 고뇌는 시집에 수록된 55편의 시들 곳곳에 나타난다. "내가 가는 길에/눈길 가 닿을 티끌 하나/겁먹은 삭정이 하나/두지 마라"('삶' 전문) "미치게 살"아온 삶이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픈 시인의 꿈이다.

시인은 현재 고향인 전북 임실군 덕치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이번 시집은 '연애시집'(마음산책 펴냄) 이후 4년여만에 나왔다. 김씨는 "몇년 동안 써놓은 것을 엮으려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새롭게 다듬느라 지난 몇달간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섬진강 시인'답게 강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다. "외로움이 쇠어/지붕에 흰 서리 내리고/매화는 피데/봉창 달빛에/모로 눕는 된소리 들린다/방바닥에 떨어진 흰 머리칼처럼/강물이 팽팽하게 휘어지는구나/끝까지 간 놈이/일찍 꽃이 되어 돌아온다"('남쪽' 전문)

시인은 책 머리에 "그때 나를 찾아왔던 나비와 매화 그리고 봄바람, 나는 이들에게 늘 '그래서 당신'이고 싶다"고 밝힌다. 자신에게 시상을 제공했던 자연들에 대한 고마움을 에두른 것이다.

"그래, 알았어/그래, 그럴게/나도……응/그래"('달' 전문)라는 시는 시인과 달과의 대화를 마치 오래된 연인과의 전화 통화를 연상하듯 그려냈다.

김씨는 "속내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짧은 대화 속에 이미 많은 사연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동안 품어왔던 교육문제에 대한 생각을 글로 엮어 '교단 일기'를 펴낼 예정"이라며 "이제까지 교육에 관한 책은 낸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할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학동네·6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박지원의 산문·일기 20여편 낱낱이 해부

연암을 읽는다 박희병 지음

"그때 문득 강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마치 누님이 시집가는 날 쪽진 머리 같았고, 강물 빛은 당시의 거울 같았으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 같았다. 나이들어 이별과 근심, 가난이 늘 떠나지 않아 꿈결처럼 훌쩍 시간이 지났거늘 형제와 함께 지낸 날은 어찌 그리도 짧은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43세 나이로 눈을 감은 누이를 절절히 그리워하며 쓴 시다. 죽은 누이의 관을 싣고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명치끝을 누르고 있는 연암의 통한이 절절이 배어있다.

'열하일기', '호질', '허생전' 등 작품 만으로 연암을 실학자로, 또는 시사비판과 풍자에 뛰어난 풍자 문학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연암을 읽는다'의 저자 박희병(서울대 국문학과)교수는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독일의 괴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고 당당히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사유를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 자구(字句)를 단련하면서 물샐틈 없이 한 편의 글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문장력 등을 통해 연암의 문장을 '고전'의 반열로 끌어 올린다.

그는 연암 문학의 정수인 20여 편의 산문, 일기 형식의 짧은 글을 낱낱이 해부한다. 그는 또 연암의 글들이 한문학의 전통적 작법에 얼마나 파격적 변화를 줬는지를 안내함으로써 대문장가로서 연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단지 아쉬운 점은 원문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

죽은 누이에 관한 글에 대해 저자는 "개인적인 글임에도 진솔하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는 보편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적시게 된다"고 총평한다.

이 처럼 작가는 한문으로 쓴 연암의 글을 우리말로 풀어낸 뒤 단락별로 주해, 평설, 총평으로 잘게 부숴 고전에 낯설어하는 독자들의 입에 넣어준다.

저자는 "내가 연암 속으로 들어가고, 연암이 내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죽었던 연암이 환생하게 되는 느낌을 독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돌베개·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홍희담의 '깃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의식 영역에도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간은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나 나침반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거두절미하고, 인생의 동반자와 나침반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책이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역시 책이다. 책이란 우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위대한 우주이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라면 '오월 광주의 성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홍희담의 '깃발'이라는 소설집을 권하겠다.

2003년 5월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집 속에는 다섯 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는데, 표제작이 된 중편소설 '깃발'을 위시하여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문밖에서', '김치를 담그며', '이제금 저 달이'가 수록되어 있다.

1988년 계간지 '창작과 비평' 봄호에 발표되었던 '깃발'은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룬 첫 작품이었으며, 계급적 관점과 반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씌어진 당대의 문학적 상징이다.

오월 광주의 성서

그리고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문밖에서', '김치를 담그며'는 오월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이제금 저 달이'라는 중편소설 역시 그날 이후의 노농(勞農)연대를 다룬 작품이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오월 광주에 파묻혀 있는 바보라며 혀를 끌끌 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아픈 과거를 미련 없이 훌훌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충고를 던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이런 점을 간과(看過)하고 있다.

오월 광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그건 그날의 모든 진실이 말끔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월 광주의 정신이 6월 민주항쟁과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낳았으며 분단 조국의 통일을 위한 깃발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부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월 광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일 뿐더러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아픈 과거를 미련 없이 훌훌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그날의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그런 토대가 없는 출발은 결국 원점으로의 회귀(回歸)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월 광주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이며, 지역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 또 오월 광주는 우리 민족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동반자요 나침반이다.

나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과 밝은 미래와 그리고 분단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오월 광주의 성서'라고 말했던 홍희담의 '깃발'이라는 소설집을 책상머리에 항상 놓고 지낸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 작품을 읽고 또 읽으며 희망에 젖는다.

박 혜 강
〈소설가〉

2007학년도 수강생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하는 강좌!
위재권 초등교육과정
무료공개특강 3월 15일 (수) 18:00~22:00
교육과정해설 및 출제경향분석
여름방학특강 직강 개강 7월 6일
목:10:00~17:00
- 교육법 문제풀이 및 핵심이론정리
- 지점파악에 사전예약접수중
선배합격생이 입증하는 출제 경향에 가장 정통한 교원임용강좌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곽내영교육학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곽내영 선생 직강! ----- 교육학개강 5월 6일
전공 국어 최병해 마문용
전공 영어 송옥
전공 수학 임대성
일반사회 김형수
공통과학 장영민 교수팀
전공 생물 강치욱
전공 물리 장영민
전공 미술 김성희
전공 체육 김용호 조남용
임미선 유아교육과정
· 유아교론 및 교육과정해설반
· (일)10:00~17:00
· 개강 3월 12일
교원임용고시의 최정상!
곽내영고시학원
수강문의 : 062-529-0090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쾌생한 학원강의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곽내영
유아교육 임미선
미술 김성희
국어 최병해팀
영어 송 옥
수학 임대성
체육 김용호팀
공통과학 장영민팀
일반사회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경 현대직업전문학교 축
"최고수준의 강사진과 알찬 교육내용, 교육시설로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개교 하였습니다. 인재육성의 명문교육기관으로서 사랑을 받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격증대비반 (유료과정)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필·실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실기
문서작성/엑셀/파워포인트/인터넷
▣ 수시개강 자격증반(매월1일,15일)
컴퓨터활용능력(1,2,3급),워드프로세서(1,2급)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CG)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직 장 인(무료과정)
정보화기초-1(환급 100%)
윈도우/인터넷/문서편집활용
교육시간 PM 7:00 ~ 9:30 화,목 (선납금 90,000원)
정보화기초-2(환급 100%)
엑셀/파워포인트/컴퓨터활용
교육시간 PM 7:00 ~ 9:30 월,수,금 (선납금 120,000원)
무자동화실무(환급 80%)
문서편집/엑셀/파포/컴퓨터활용
교육일정, 시간 (상담후 결정)
참고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선착순15명) • 일반인 자비로 수강가능 · 교재무료제공
- 도청(외환은행) :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365, 555, 777
- 전남여고 : 3, 11, 27, 38, 55, 111, 118
- 예술의거리 :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전남여고 건너편(현대고시학원內 3층)
☎224-4560, 225-7200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5월1일 전문학원!!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만이 당신의 합격을 앞당깁니다.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전남여고 건너편 ☎234-0234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수석 본·원·출·신 송 은 영 님 96.7
광주고시학원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합격률 1위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앞 전일빌딩 뒤 / 지하철 도청역 6번출구

● 주간 첫 진도 개강:4월 15일
● 야간 첫 진도 개강:4월 17일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되기위한 절호의 기회) =
특채 시험과목: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합격개강 수시모집
경찰직 준비생 절호의 기회!(2과목만 하면된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